문화유산발굴조사단 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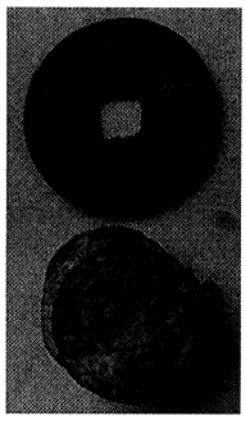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12세기 조성?

탑 밑에서 12세기 동전 발견 '10세기 조성설' 뒤집어

월정사는 한국판 폼페이 유적인가?

오대산 문수신앙의 중심지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월정사(주지 현해)의 시굴조사(정식 발굴 전에 하는 시험발굴)에서 기존 상식을 뒤엎는 유물들이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월정사의 '땅 속 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보 48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탑 아래 토층에서 발견된 12세기 동전(사진 위)과 양녕 · 효령 대군의 이름이 적힌 기와(사진 아래).

그 동안 10세기 무렵 건립됐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뤘던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의 조성연대가 아무리 빨라야 12세기 이후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승유억불을 내세웠던 조선초기, 세조뿐 아니라 이보다 앞선 세종 때에도 왕실 후원의 중창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와 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벌여온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정각 문화부장)은 24일 "석탑 아래에서 12세기 초 주조돼 사용됐던 동전이 발견됐다"며 "현재의 위치에 탑이 조성된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12세기 초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고려시대 다각다층탑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미술사적 양식으로 볼 때 10세기경 조성됐다는 견해가 일제시대 고유섭 이래 미술사학계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1102~1106년 주조돼 사용됐던 숭녕중보(崇寧重寶)가 탑의 옛 지표면 아래에서 발견됨으로써 탑의 조성연대는 12세기 이후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조선시대 기와가 므더기로 쌓여있는 와적층에서 세종 임금의 형과 아우인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의 이름이 새겨진 암막새 기와가 출토됨에 따라 월정사가 세종 28년인 1446년 4월 두 대군의 주도 아래 중창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세조 때 월정사를 중창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지만 세종 때 양녕과 효령대군이 월정사 중창에 참여한 사실은 처음 확인된 것이다.

세종때 양녕 · 효령 대군 중창 주도 확인

전면 발굴로 가람배치 확인 필요성 제기

건물터는 고려와 조선시대 건물터가 탑 주변에서 중복돼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단은 "12세기 초 · 중반기에 청자와 기와 조각으로 터를 다지고 탑을 세웠으며 조선 중기 이후 다시 탑 주변에 흙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려시대 건물터는 대체로 현재의 지표면보다 70~80cm 아래서 발견되고 있으며 신라시대 건물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김동현(동국대), 정영호(한국교원대), 문명대(동국대), 최몽룡(서울대) 교수 등 지도위원들은 "너무 부분적인 발굴이라 가람의 전체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전면 확대 발굴을 통해 탑이 조성된 고려시대 가람배치를 확인하고, 탑 주변의 하부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탑의 기단석 하부 보강시설이 원래 하천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래층 위에 세워져 탑의 하중을 견디기에는 극히 취약한 구조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는 월정사는 한국전쟁 때 팔각구층석탑을 제외한 모든 전각이 소실되기까지 모두 8차례에 걸친 화재와 7차례의 중창으로 사찰의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373종 선정 · 발표

불교관련서적 모두 16종

대한민국학술원(http://nas.go.kr)은 24일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2002년 우수학술 도서' 373종을 선정, 발표했다.

학술원이 이날 발표한 우수 학술 도서 373종 가운데 불교 관련 서적은 인문학 분야 7종, 사회과학 분야 2종, 사회과학의 인문학적 연구 분야와 자연과학의 인문학적 연구 분야 각각 1종, 한국학 분야 3종, 기초과학 분야 2종 등 모두 16종이다.

9월말까지 대학도서관에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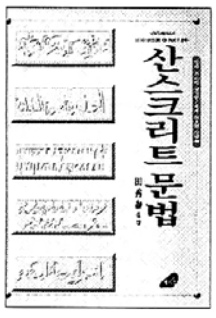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출판된 것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학술원은 9월말까지 이들 도서를 구입해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도서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선정된 불교 관련 서적은 다음과 같다.

◆인문학 분야 △한국 사상의 비교철학적 해석-원효에서 다산까지(김형효, 청계출판사) △주자의 선불교비판 연구(윤영해, 민족사)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은정희 외 역주, 일지사) △유식무경-유식 불교에서의 인식과 존재(한자경, 예문서원) △근현대 불교의 재조명(김광식, 민족사) △그림으로 보는 불교 이야기(정병삼, 풀빛) △씰크로드학(정수일, 창작과비평사) ◆사회과학 분야 △인지심리학(이정모 외, 학지사) △선과 파블로프의 개-지관(止觀) 상담 및 지관의 행동치료적 응용(김보경, 교육과학사) ◆사회과학의 인문학적 연구 분야 △이븐 바투타 여행기 1 · 2(정수일 역주, 창작과비평사) ◆자연과학의 인문학적 연구 분야 △인지과학(이정민 외, 태학사) ◆한국학 분야 △백제금동대향로(서정록, 학고재) △한국의 마애불(이태호 외, 다른세상) △한국불교음악사연구(박범훈, 장경각) ◆기초과학 분야 △녹색화학 : 더 푸른 지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덕환 옮김, 한승) △생태학-인간과 자연(노태호 외 역, 아카데미서적)

'산스크리트 문법' 국역 출간

영 · 독 · 일 · 불 이어 5번째, 고려대장경 궁금증 해결 실마리



기원전 5세기 파니니가 기록한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법인 '파니니 문법'은 인간의 지혜로 이룬 최대 금자탑의 하나(one of the greatest monuments of human intelligence)라 불린다. 〈산스크리트 문법〉(사진 · 전수태 옮김, 박이정)은 영어, 독어, 불어, 일어에 이은 세계 5번째 파니니 문법 번역서다. 파니니 문법 판본 중 가장 정리가 잘 된 것으로 평가받는 불어판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는 25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구어로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문어로서는 파니니에 의해 완벽하게 남아 있다. 이 문법은 실제로 언어를 규정된 그대로 생성해내는 실용적 문법으로 약 400개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니니 문법은 오늘날의 문법서들과는 그 기술방법의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로는 대부분의 현대 문법서들이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으로 나누어져 기술되는데 반해 이러한 구분 없이 문법의 전 영역에 대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약 10만개의 산스크리트어 문법 규칙 중 정선된 3983개를 노래하듯이 입으로 암송하는 가운데 어휘와 문법 규칙을 공부할 수 있는 암문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기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잡한 문법을 간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호 언어는 암송에도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규칙들에 관련 조항을 표기해 규칙간의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파니니 문법' 바탕 고려대장경 연구

문자사용 등 여러가지 의문 풀릴 것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파니니 문법을 원용한 문법서를 만들기 위한 학자들의 모임인 대장경파니니연구회는 고려대장경연구소와 함께 지난 1998년 고려대장경에 나타난 파니니 문법의 흔적과 그 영향을 조명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이 책을 옮긴 전수태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원은 "파니니 문법을 바탕으로 고려대장경을 연구해 본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법의식과 문자사용에 대한 궁금증들이 풀릴 것"이라도 말한다. 값 4만5천원.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직지' 선사상, 간화선 일변도 경계

"간화선도 한 방편, 근기맞는 수행법 강조

'서방정토' 부정, '유심정토' 입장의 염불관

김종명 교수 발표

"문자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지만 간화(看話)에 집착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병이다."

지난 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원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1377년 금속활자본 간행)에 나타난 선사상이 당시 고려후기 불교사상의 주류였던 간화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20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국학 대회' 자유주제 분과에서 '〈직지〉의 선사상과 그 의의'를 발표한 김종명 교수(영산대 · 사진)는 "〈직지〉에 나타난 선 사상의 특징은 무심(無心) 혹은 무념(無念) 사상에 있으며, 이는 책이 편찬된 고려 후기의 주류 불교사상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말했다. 서지학적 접근이 아닌 〈직지〉에 담겨있는 선사상의 내용 분석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백운경한이 〈직지〉를 편찬한 고려말은 태고보우와 나옹혜근 등에 의해 임제선 중에서도 간화선이 정통으로 일반화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김 교수에 따르면 〈직지〉의 편찬자인 백운은 이 책을 통해 "간화선은 수행의 전부가 아니라 한 방편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망념을 없애는 것(무심, 無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수행의 방법으로 '무심'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직지〉는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 방법을 찾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직지〉에 나타난 계율관과 염불관도 전통적인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고기나 술, 오신채를 허용하고 있으며, 무심 사상이 극락으로 가기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데 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염불관에 있어서도 서방정토(西方淨土)설을 부정하고 유심정토(唯心淨土)설의 입장에 서 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직지〉는 중국이라는 특정 지역, 선종이라는 특정 종파의 가르침에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역사적 역할도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승려들의 교재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면서도) 세계사적 중요성이 경감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진묵대사께서 주석하시던 봉서사

주지로 당선되신 이법성스님께

당선 축하 드리옵고

진묵대사의 원력으로 중생교화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46년 7월 19일

신도회장 황 미 라

전북 완주 봉서사 춘담(재환) 문중. 문도 일동

전북 완주 봉서사 봉서회 사부대중 일동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풀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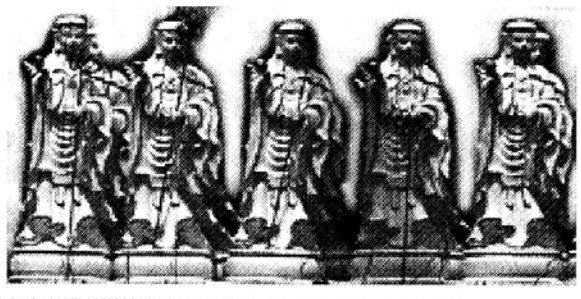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지장보살님 (옥불) 조성 안내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 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택배가능)

※ 공양주 보살님 · 행자스님 모십니다.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 25 - 8 TEL : 031)533-4405